



박찬갑

PARK CHAN-KAB

- 국내, 외 개인전 46회 (서울예술의전당, 미국, 프랑스, 일본, 덴마크, 페루 등 다수)
- 그룹전 및 초대전 400여회 (Le Salon Collectionneur-France 전 외 다수)
- 국제현대조각심포지엄 초대작가 43여회 (프랑스, 덴마크, 아르헨티나, 스웨덴, 일본, 브라질, 벨기에, 독일, 베네주엘라, 페루 등 다수)
- 프랑스 국립미술협회 초대 특별전 2회 2001, 2002 (파리 루브르박물관 카르셀 전시실)
- France Nantes시 동양조각공원 개관기념 조형물 현지제작 설치
- EU문화수도 지정기념 코펜하겐 특별전 (덴마크 외무부초대)
- 주요 공공미술기획 조직위원장, 총 커미셔너역임
(부산UN기념공원, 한국민속촌현대조각공원, 산청국제조각심포지엄, 김천직지문화공원,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기획창설, 국제조각가친선협회심포지엄 기획창설, 외 다수)
- 1980 - 2005 / 중앙일보사 평생교육원, 송실대학 조형예술원 객원교수역임
- 2004 - 2005 / 프랑스 Magne시 국제아트페스티벌 심사위원
- 1급 문화훈장 수상 (Maestros) - 2005, 베네주엘라
- 파리국립미술협회 Bronze Medal - 2003, 프랑스 파리국립미술협회
- Artist Choice 대상 - 2000, 스웨덴
- 국제조각심포지엄 대상 수상 - 페루, 아르헨티나, 스웨덴, 프랑스, 브라질, 등
- 사회교육 유공자상 - 1980 문교부
- 사회봉사상 - 1982 한국소년소녀지도자 협회
- 청소년지도자사회교육 대상 - 2000 문화관광부
- 자랑스러운 동문상 - 국립체신고등학교

작품소장 국립현대미술관, 경남도립미술관, 국토개발연구원, 안양시의회청사, 제암리 순국선열기념탑, 선문대학교상징조형물, 삼성연수원, 안양호계초등학교, 일산호수공원, 부산UN기념공원, 한국민속촌현대조각공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인천가정법원, 김천문화예술회관, 김천직지공원, 산청군청, 서강대학교인성교육원, 영월스포츠파크, 동강시스타, 프랑스, 일본, 페루, 브라질, 덴마크, 아르헨티나, 스웨덴, 외 다수.

현재 · 한국미술협회 고문 / 프랑스 파리국립미술협회 정회원
· 국제조각가친선협회 회장 / 국제현대미술관 (영월)

주소 서울 강남구 삼성로75길 32-10

작업실 강원 영월군읍 삼옥길31 국제현대미술관
parkchankab@hanmail.net

박찬갑 조각가 나는 누구인가?



2017. 11. 20 월 4:30 - 5:30p.m.
광주과학기술원 중앙도서관 1층 소극장



광주과학기술원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도서관
Library

나는 누구인가?

박찬갑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

나는
사랑의 씨앗이며
사랑으로 왔다가
사랑으로 돌아 가는 것이다.

살아 있다는 것이 기쁘고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이 즐겁고
사랑을 남기고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얼마나 행복한가!

〈2007년 발표〉



박찬갑, 다의적인 조각가

제자르 슈리게라 (프랑스 미술평론가)

확고한 대가의 능력을 지니며 결코 현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않고 정신적인 목적 또는 현실 사회 비평에도 막히지 않는다. 그 자체의 엄격한 표현양식만이 아닌 철학적, 형이상학적 고찰의 암시적 의미를 드러낸다. 그의 작품에는 항상 상징적 해석학, 연구를 가지고 그것은 이상, 관념을 높이고 물질을 초월한다.

PARK Chan-Kab, sculpteur polysémique, possédant une solide maîtrise de ses moyens, ne s'est jamais soustrait à l'emprise du réel, pas plus qu'il ne s'est encombré de visées intellectuelles ou de critique sociale. Ce qui caractérise sa quête n'est donc pas strictement la forme en soi, mais des connotations métaphysiques, car il y a toujours chez lui une symbolique qui élève la pensée et transcende la matière.

Gérard Xuriguera

박찬갑의 삶과 예술세계

김광명 (숭실대 교수, 예술철학)

박찬갑 예술세계의 핵심은 '있는 것'에서 '없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 그러기 위해선 아마도 사물에 대한 지각이 아니라 마음으로의 깨달음, 형상을 넘어선 경지가 필요할 것이다. 이는 그에게서 사물에 대한 철저한 지각을 바탕으로 사물을 섭렵한 결과 얻어진 값진 산물이다. 마치 석공이 돌 속에서 쓸데없는 부분을 다 쪼아 내고 남는 것으로 작업을 완성하는 것과도 같은 이치이다. 이는 '채움을 비움으로' 바꾸는 일이거나 원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되돌아감이다. 이렇게 하여 그는 늘 인간과 자연이 교감하길 바라며, 삶을 포용하는 시선을 담고 싶어 한다.

Park Chan-Kab's Life and World of Art

The gist of Park's world of art lies in the process of seeking 'not being'. For this purpose, probably not the perception of things, but the realization by the heart, a state beyond figures is necessary. This is a valuable product resulted from his searching far and wide for things based on the thorough perception of them. This is much the same way as a mason chisels off every superfluous part from a stone to complete his/her work. It is to change 'filling into emptying', and also than return to the appearance as it were. As such, he always wants for humans to sympathize with nature, and hope to contain the sight embracing life.

Kim Gwang-myeong (Professor, Sungsil University, Philosophy of Art)